

베네수엘라의 2001년 경제 실적 및 2002년 경제 전망

- 2001년도 베네수엘라 경제는 건설, 통신 부문의 호조에도 불구하고 무역흑자 및 외환보유액이 전년대비 각각 53.6%, 23.7% 급감했으며, 경제성장률도 2.8%로 둔화됨.
- 이는 세계경제가 침체된 가운데, 석유감산, 유가 하락으로 석유관련 수출 收入이 감소하고, 불리바르화의 고평가로 輸入이 증가했고, 정정불안으로 외자 유출이 늘어난 데 따른 것으로 평가됨.
- 금년 베네수엘라 경제는 정치불안, 아르헨티나 경제위기, 유가 약세 등으로 대내외 여건이 좋지 않아 성장세가 둔화되면서 경제난이 심화될 소지가 있는 것으로 전망됨.

□ 베네수엘라의 2001년 경제 실적

○ 국내경제

- 2001년 베네수엘라 경제는 건설(13%), 통신(11.5%) 부문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유가 하락에 따른 석유수출 수입의 감소 등으로 경제성장률이 2.8%로 둔화됨.

○ 경제성장률 추이 :

97년: 7.4% → 98년: 0.7% → 99년: -5.8% → 00년: 4.0% → 01년: 2.8%

- 석유산업은 OPEC 감산 조치로 인해 생산량이 감소(40만 B/d)했고 유가가 전년대비 20% 가량 하락함에 따라 침체를 보였고, 석유수출

수입도 2000년 130억 달러의 61.5%에 불과한 80억 달러로 감소함.

○ 배럴당 평균 유가 추이 :

98년: 10.57달러 → 99년: 16.04달러 → 00년: 25.91달러 → 01년: 20.3
달러

- 물가상승률은 식료품 가격 상승에도 불구하고 볼리바르화의 강세 유
지로 최근 16년간 가장률 기록함.
- 환율은 외화유출 및 수입 증가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저환율정책 지
속으로 연초대비 9.6% 평가절하된 767볼리바르를 기록함.

○ 국제경제

- 상품수지는 수출 282억 달러(전년대비 18.1% 감소), 수입 213억 달러
(전년대비 7.4% 증가)로 68억 달러의 흑자를 기록했으나, 흑자 규모
는 전년 동기의 145억 달러에 비해 53.6%가 감소함.
- 외국인 직접투자는 정보시장 개방 등으로 2000년 6.5억 달러보다
50.8% 증가한 9.8억 달러를 기록했으며, 국가별로는 네덜란드(60%),
미국(10%), 업종별로는 통신(72%), 제조업(22%) 분야에 대한 투자가
두드러졌음.
- 외환보유액은 석유수입 감소 등으로 2000년 161억 달러에서 23.7%
감소한 122.8억 달러를 기록함.
- 한편, 베네수엘라 정부는 1999년부터 유가하락에 대비하여 석유수출
잉여수입으로 거시경제안정기금(FIEM)을 적립(2001년말 현재 62.2억
달러)해 왔으나, 유가가 하락하자 2001년 10월부터 15개월간 적립을
중단함.

□ 베네수엘라의 2002년 경제 전망

- 베네수엘라 정부는 금년 평균 유가를 배럴당 18.5 달러로 가정하고 경제목표(경제성장률 4%, 인플레이 10.1%, 재정적자 GDP의 4.3%, 실업률 10-11%)를 제시하고 있음.
- 그러나 베네수엘라 기업인 연합회(FEDECAMARA)는 현재 불안한 유가와 정치 상황을 고려할 때, 정부가 가정한 석유생산량(288만 b/d)과 유가(배럴당 18.5달러)는 지나치게 낙관적이라며, 인플레이는 25%, 재정적자는 GDP의 6-10%, 실업률은 14% 이상에 달해 경제성장률은 마이너스 성장(-1%)할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음.
- 한편, UN 중남미경제위원회(CEPAL)는 석유 감산에 따른 수출 감소 등으로 경제성장률은 2.5%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함.
- 국내외 경제전망을 종합해 볼 때, 금년 베네수엘라 경제는 유가 향배와 국내 정치상황에 따라 크게 좌우될 것으로 보이며, 실질 구매력 기준으로 50% 가량 고평가된 볼리바르화의 평가절하와 함께 외환위기 발생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임.

□ 평 가

- 2001년 베네수엘라 경제는 석유산업의 침체에도 불구하고 건설, 통신 등 비전통산업의 호조로 2.8%의 경제성장을 기록했으나, 국내 정치상황 불안, 수출감소, 외자유출 등으로 외환보유액이 급감하는 등 불안정한 양상을 보임.
- 2002년에도 베네수엘라 경제는 주요 교역국인 미국과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하고 국제유가의 하락, 아르헨티나 경제위기 등으로 대외여건이 좋지 못한 데다가, 차베스 정부의 지지율 하락과 정정불안 가중 등으로 국내 경제여건도 불안정한 양상을 보이고 있어 성장세가 둔화되고 경제난이 심화될 소지가 있는 것으로 전망됨.